

경북TP, 세계 최초 무선충전 국제규격(Qi)관련 WPC 시장감시기관(Market Surveillance Lab) 지정

- 경북테크노파크(이하 경북TP, 원장 이재훈)는 무선전력전송(무선충전) 국제표준단체(WPC: Wireless Power Consortium))로부터 세계 최초로 WPC 시장감시기관(Market Surveillance Lab)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.
- WPC는 전세계 인증시험기관들로부터 시장 감시(Market Surveillance) 제안을 받았으며, 모두 8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나, 최종 2개 기관(경북TP, NTS(미국))을 이번 4월 WPC1802 (4.10~13)에서 확정 발표하였다.
- WPC는 삼성전자, LG전자, Apple, 필립스, 도시바, HTC 등 210여개사(국내 40개사)가 참여하는 무선전력전송 국제표준단체이며, 또한 국제규격(Qi) 인증시험(표준적합성 시험*, 상호호환성 시험)을 통과하면 「Qi」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.
* 표준적합성: 표준단체(WPC)에서 제정된 표준규격(Qi)의 세부 요구사항 구현 여부를 적합성 시험 검사기로 검증
- 현재, WPC로 부터 국제규격(Qi) 인증을 받은 무선충전 제품은 전세계적으로 1181개이며, 국내·외에 판매 유통되고 있다. 한편, WPC는 Qi 인증받은 무선충전 제품 중에서 규격미달 인증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.

- 따라서, WPC는 전세계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Qi 인증제품들이 지속적으로 Qi 규격에 준하는 품질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, 규격미달 Qi 인증제품을 조사하기 위한 Market Surveillance 시험검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.
 - WPC는 세계 최초로 경북TP, NTS(미국) 등 2개 기관을 무선충전 Qi 인증제품의 세계시장 감시시험소 즉, WPC 시장감시기관(Market Surveillance Lab)으로 지정하였다. 경북TP는 아시아 및 유럽에서 제작된 Qi 인증제품들을 수집하여 Market Surveillance 시험을 하고, NTS는 미주에서 제작된 Qi 인증제품들을 수집하여 Market Surveillance 시험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.
 - 경북TP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는 경산시 지식산업지구에 대지 1500평에 577평 규모로 신축하였고, 금년 4월에 신축 센터로 이전하여 안정적인 무선전력전송 연구 및 인증시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.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는 2016년부터 5년간 산업통산자원부와 경상북도, 경산시로부터 총 사업비 192억원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자기유도/공진형 무선전력전송 산업기반 구축사업으로 구축되는 전문기술센터이다.
 - 경북TP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(센터장 이기범)는 작년 11월에 WPC로 부터 지정 받은 국제규격(Qi, EPP**) 표준적합성 인증시험과 더불어, 이번 WPC Market Surveillance Lab을 추가 획득함으로써, 국내·외 무선전력전송분야 선도 시험기관으로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.
- ** EPP(Extended Power Profile): 무선충전기(15W급) 표준적합성 시험
- 경북TP 이재훈 원장은 “무선충전 국제규격(Qi)관련 WPC Market Surveillance Lab 지정을 통해 국내·외 무선전력전송 제품의 신뢰성 품질을 향상시키고, 지역 무선전력전송 제품 경쟁력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